

대선, 2강1중 구도속 승자 예측불허

부동층 흡수·야권단일화·TV토론 등 변수
지지율 혼전세…후보자들 리스크 승패 갈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승자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불허’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판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강 1중’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간의 예측불허의 접전은 오는 2월 1일 구경 명절을 전후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력 후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리스크 요인이 선거 캠페인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여론조사상 1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상상 초유의 대선”은 3월 9일 선거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최소 5%에서 많게는 20%에 달해 이같은 부동층의 지지를 어느 후보가 흡수 하느냐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구조적 변수가 남아 있어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15~16일 조사)를 보면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32.8%, 이 후보 31.7%로 오차범위 내 박빙 구도를 이뤘고, 안 후보는 보름 전 조사 지지율의 두 배가량인 12.2%로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2.7%를 기록했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윤 후보 35.9%, 이 후보 33.4%,

안 후보 15.6%, 심 후보 4.0%로 조사됐다.

전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9~14일)한 결과에서는 윤 후보 40.6%, 이 후보 36.7%를 각각 기록했다. 일주일 전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선 반대로 윤 후보가 우세를 보인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는 이 무렵의 지지율 1위 후보가 대체로 최종 승자로 귀결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1위 후보가 수시로 바뀌는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 대선’이었던 2017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앞서고 홍준표·안철수 후보 등이 추격하는 구도였고 실제 문 대

통령의 당선으로 끝났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가 대부분의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출론 안정적인 1위 흐름을 보였다. 예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02년 대선이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렸지만,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며 역전승을 거머쥐었다.

예측 불가 대선으로 흘러가는 최대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후보 리스크’를 꼽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리스크’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무속인 연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는 지역이나 이념, 세대 등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대선은 이런 후보 리스크 탓에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의 혼전세는 여론조사 자체가 난립하고 있는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데다 여론조사 방식도 제각각 이어져 지지율 순위가 수시로 바뀐다는 분석이다.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TV 토론과 단일화가 꼽힌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보다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현재와 같은 박빙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대선 후보들 신년 하례식 참석
이재명(오른쪽부터)·윤석열·김동연 후보가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윤석열, 27일 첫 양자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첫 양자 TV토론을 한다.

두 후보는 이날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이 1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 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오늘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양자 토론은 양 후보 간 누가 민생 대안, 미래 비전 및 실천 능력을 가지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 3사가 설 연휴 뒤 4당 후보간 합동 토론을 제안해 이재명 후보는 수용한다”면서 “윤석열 후보 등 다른 3당 후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7일 열리는 양자 토론의 방식이나 주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정하는 톨 미팅은 2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토론 일정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양자토론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사회자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자토론 강행 시 법원에 방영 거처분 금지 신청 등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역시 양당의 양자 TV 토론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신경계 비전인 ‘이재노믹스’를 제시하고 12일에는 산업분야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6대 공약은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원동력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역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부, 소상공 지원 추경 21일 확정…24일 국회 제출

초과세수 10조원 등 포함 14조원 규모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술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

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 뒤 1주일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하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선 예비후보 등록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를 미루고 대선에 올린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검증위를 대선 이후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선거운동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대선 판세가 박빙 양상으로 전개돼 중랑뿐 아니라 지방 말단 조직까지 대선에 올린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렸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